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민수기 | Numbers 1:47-54

말씀 FOCUS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듯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이며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죄를 분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영적 질서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UNDERSTAND

➤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 지파

1. 그리스도인은 ()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7-49, 벰전 2:9, 출 19:5-6)
2.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을 지키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51, 고전 14:33, 민 3:41, 고전 6:19-20)

말씀 APPLY & SHARE

1.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시간과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업무, 가족, 여가, 소셜 미디어 사용 등의 시간을 볼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기도, 성경 읽기, 큐티, 예배 등)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2. 오늘 내가 마주하는 상황(직장에서의 결정, 관계에서의 갈등, 소비 패턴 등)에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중 어느 것을 따라 선택하고 있나요?
3. 내가 속한 공동체(교회, 직장,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주로 내 편의나 입장에서 행동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 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에 있나요?